

3·30 부동산 후속대책 뭉달았나

영세민 전세 3만가구까지 확대

정부가 8·31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3·30후속 대책을 발표해 집값 안정화 의지를 재 천명했다. 특히 정부는 서민 주거안 정을 위한 각종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8·31대책 이후로도 급등세를 보여온 재건축 시장에 대한 강도높 은 대책을 밝혀 더이상 비정상적인 집값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 히 했다.

저소득층 위한 '전세임대'도 4,500가구 25.7평 이하 주택 용지 공급가도 낮춰

저소득 취약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주공이 전세를 얻어 제공하는 '전세임대'도 지난해 시범사업 (503가구)에 성공한 이후 올해부터 4천500가구씩 공급한다. 임대주택의 비축물량도 크게 늘 릴 방침이다. 2012년까지 소형 임대 주택 75만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고, 재건축·도시재정비사업 등으로 건 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매 입해 2012년까지 7만4천가구를 비 축하기로 했다.

한 시점을 지구지정일에서 공판공 고일로 앞당겨 용지보상을 합리화 하기로 했다. 또 광역기반시설 비용을 합리적 으로 부과하고, 전용 25.7평 이하 서 민용 분양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현행 감정가 대신 조성원가에 일정 률(수도권 10%, 광역시 0%, 지방 - 10%)을 가감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택지 공급가격을 낮추기로 했다.

로 하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당장의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은 막을 것으 로 보고 있다. 이미 시행중인 임대주택의무비 용을 통해 개발이익의 일정 정도가 환수당하는 상황에서 다시 개발이 익을 최대 50%까지 환수하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를 통한 막대한 수익 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. 특히 개발이익 환수 대상을 관리 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모 든 사업장가로 정함에 따라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대부분이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 된다.

8.31 후속조치 주요내용
재건축: 개발이익 환수 - 0~50% 범위, 시범사업 사업장도 포함
제도 합리화: 안전진단 절차, 기준 강화, 조합 운영 투명화
서민주거복지: 분양가 인허, 저소득층 주거안정, 주택담보대출 강화
수요관리: 도심광역 재정비 본격화, 주택거래신고제 강화
기타: 도심광역 재정비 본격화, 주택거래신고제 강화

8월이전 모든 사업지구 대상 준공이후 부과... 물납·분납 징수

부과대상 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으로 사업이 진행중인 단지는 착수에서 종료시점까지 전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뺐은 뒤 이를 제도 시행 일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안분, 시 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만 부과한다. 또 개발이익이 미미한 수도권 외곽과 지방 등은 면세점을 뒤 감 면책이 부여된다. 착수 및 준공 시점의 주택가격은 주택공시가격 (기준시가)으로 하며 착수시점은 대상이어서 법이 시행되는 오는 8 월 이전 착공이전의 지구는 사실 상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.

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격 에서 착수시점의 주택가격과 기반 시설부담금, 건축비 등 각종 개발 비용,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~ 50%의 부담률(조합원 평균 개발 이익 기준)을 곱해 산정된다. /최경호기자 choice@kwangju.co.kr

주택담보대출 한도초과 21개 금융회사 적발

금감원, 임직원 130명 문책
한도를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용도를 유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21개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. 금감원 당국은 지난 2월1일부터 40 일 동안 44개 금융회사 본점 및 영업점 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관한 일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, 이같이 드러 났다고 30일 밝혔다.

문 위원은 "앞으로 유사 위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금융회 사 및 임직원 130명에 대해서는 제재심 의 절차를 거쳐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" 이라고 말했다. 유령발로 보면 은행과 보험사, 저축은 행 등 17개 금융회사들은 542건, 1천242 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적 정 대출한도보다 381억원을 초과 취급 한 사실이 적발됐다.



봄·여름 패션의류
삼성테스코 홀플러스가 자체 생산한 패션의류 '프리선셋'의 론칭을 기념해 30일 서울 프라 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할인점 최초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봄·여름 의류를 선보이 고 있다. /연남뉴스

대한화재, 장기보험 '피오레' 출시

대한화재(대표이사 이준호)가 장기보험 상품의 대표 브랜드로 '피오레(Fiore)'를 내놓았다. 다음달 1일부터 선보일 피오레는 이탈리아어로 꽃, 최고급 품, 정수를 의미한다. 대한화재는 피오레를 자사의 자동차보 험 브랜드인 '하우머치'와 함께 2대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방 침이다. 회사측 관계자는 "피오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 질, 최고급 차별화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 를 담았다"며 "질병·상해·재물·의료보장·레저 등 손·생보 상 품을 총 망라한 고객 요구형 보험상품 브랜드로 육성하겠다" 고 밝혔다.

금호산업, 주당 400원 배당금 주총 의결... 배당률 8% 사상최대

금호산업(주)이 사상 최대 배당률을 기록했다. 금호산업은 30일 광주종합버터미널 대강당에서 제 34기 주 주총회를 열고 2005년 재무제표, 당기순이익 900억원에 대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. 주주 배당액은 219억6천700만원으로 배당률은 보통주 8% (400원), 우선주 9%(450원) 등 사상 최대 배당률을 기록했다. 한편 작년 매출액 1조5천297억원, 영업이익이 1천559억원을 달성한 금호산업은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목표를 1조6천 422억원, 1천442억원으로 각각 잡았다. /이종태기자 jitlee@kwangju.co.kr

노숙자 절반 "1년이상 연체"

4명중 1명꼴 피임에 빠져 신분증 빌려주고 피해
신용회복위 150명 설문
노숙자의 절반 이상이 금융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. 또 4명 중에 1명 꼴로 돈이나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미끼에 걸려들어 신분증 을 남에게 건네주는 바람에 직접적인 피 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노숙자를 이용 한 명의도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. 30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노숙인보호센터에 입소한 노숙 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, 전체의 54%가 금융채무를 1년 이상 갚 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. 그러나 연체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밝힌 노숙자는 6%에 불과했으며 금융채무나 연체가 없다고 밝힌 비율이 35.3%였다.

"국내 바이오 의약 산업 선진 제약사 종속 우려"

박홍우 교수 '포럼'서 제기
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 산업은 현 재의 연구비 투자 수준으로는 세계적 인 제품의 개발과 선진화에 성공할 가능성 보다는 오히려 선진 제약사 들에 종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 적됐다. 박홍우 한양대 교수(화학공학)는 30일 산업기술평가원과 바이오연구

개발협의회가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개최한 '바이오산업 세계 선도화포 럽'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 장했다. 박 교수는 "바이오의약 산업의 선 진화는 우리 기업이 직접 만든 의약 품을 선진국에서 판매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뤄지거나 현재 선진화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국내 제약회사도 없 고 앞으로 자연적으로 출현 가능성 도 매우 낮다"고 평가했다. /연남뉴스

가구별 상하 세금 격차 50배

소득액에 따라 근로자가구를 10%씩 10개 분위로 나뉘었 경우 작년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의 세금은 가장 낮은 1 분위의 5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전년의 44배에 비해 확대된 것이다. 30일 통계청의 전국 가구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근로자가 구가 작년에도 부담한 세금은 월 평균 10만3천700원으로 전년 의 9만8천700원보다 5.1%가 늘어났다. 여기에서 세금은 소득세·상속세·증여세·재산세·증부세· 자동차세 등 가구가 지출한 직접세 전체를 말한다. 분위별로 보면, 10분위의 세금은 월 평균 40만4천900원으 로 전년의 38만4천700원보다 5.3% 늘어났는데 비해 1분위 세금은 8천700원에서 8천100원으로 6.9%가 줄었다. 이에 따라 10분위와 1분위의 세금격차는 작년에도 50배에 이 르러 전년의 44배에 비해 확대됐다. /최경호기자 choice@kwangju.co.kr

중기청, 장애인기업 100억원 지원

장애인 기업에 올해 1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지원되며 2010년까지 4대 광역권에 장애인창업보육센터가 설 치된다. 중소기업청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 관에서 재정경제부, 노동부, 보건복지부 등 8개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 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계획을 심의 확정 했다.

책자금 지원 평가시 가점(최대 3점)이 부여된다. 또 장애인 기업은 2개 이상만 모이면(일반기업은 3개 이상) 협동화자 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며 2010년까지 4대 광역권에 장애인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장애인창업보육센터 가 설치된다.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 소기업 지원기관에 장애인 기업 전담관 을 지정하고 장애인기업의 상담 접수부 터 문서작성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하는 F&D기업서포터 제도도 운영기로 했다. /이종태기자 jitlee@kwangju.co.kr

함께 일합시다
Recruiting Gwangju Network
062.JOBKOREA.CO.KR
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(만원) 마감일 연락처
(주)단청 인테리어 설계(캐드.포토샵.CG) 초대졸/경력3년 1,000~1,200 04/10 016-608-9633
(주)대창 E&T 분사 사무여사원 고졸/경력무관 회사내규 04/03 062-383-6831
화인한천(주) 정규직 수질환경기사 신입 및 경력사원 고졸/경력무관 2,000~2,200 04/04 061-383-0345
뉴에이스(주) [광주]하나로텔레콤 고객지원실 상담원 고졸/경력무관 1,600~1,800 04/04 031-267-1862
(주)부림 부품조립업무 정규직 생산직 사원 고졸/경력무관 1,200~1,400 04/04 062-953-6462
(주)삼광실업 생산관리 사무원 초대졸/경력2년 1,400~1,600 04/04 062-951-1964
(주)그린텔 [광주]KTF 멤버센터 정규직 상담원 고졸/경력무관 1,400~1,600 04/05 062-604-6613
서광이엔지(주) 광주 신세계 이마트 시설관리 고졸/경력무관 회사내규 04/07 062-524-1127
신원전자정밀 주식회사 생산관리/ERP 담당자 초대졸/경력무관 회사내규 04/07 062-944-6471
(주)전덕종합건설 종합건설일 사무서류처리 및 단순경력 고졸/경력1년 1,000~1,200 04/10 062-361-6501
대한타이어공업(주) 품질관리 기사(경력) 대졸/경력2년 2,200~2,400 04/10 062-940-2073
교차로(주) 기획영업/신분공 및 기사편집/경리직 고졸/경력무관 회사내규 04/10 062-260-1004
<광주잡코리아 512-6210 제공>

삼성, 국내 첫 'eu 도메인' 확보

도메인·호스팅 업체인 후이즈는 삼성이 자사를 통해 sam-sung.eu 도메인 확보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. 삼성은 해당 도메인을 지난 해 유럽 내 상표권자 우선 등록 기간에 후이즈를 통해 신청, 28일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이 회사는 전했다. 또 삼성은 유럽 내 상표권자 우선 등록기간 에 samsung.eu 외에도 상표권을 보유중인 브랜드 도메인들을 모두 신청 완료했다고 덧붙였다. 현재 유럽 내 상표권자 우선 등록이 진행 중인 eu 유럽 도메인은 4월7일부터 일반인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. /이종태기자 jitlee@kwangju.co.kr